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 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291부를 일원배치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은 보육교사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보육교사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발달권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유아권리존중 인식이 높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제도 및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 주제어: 보육교사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졸업, 제1저자
2)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yhsclan@gwangju.ac.kr)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안 선 신¹⁾ 윤 현 숙²⁾
Sun Shin Ahn Hyun Suk Yoon

I. 서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고 핵가족과 다문화,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비중이 줄어들고, 매우 이른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등 전통사회의 양육방식에서 국가와 사회가 양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최운진, 김정희, 2014). 일부 어린이집은 시지정 24시간 운영 시설로 지정되어 연장, 야간 보육 등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원아들에게는 어린이집이 가정화되는 현실이 현대의 상황이다. 이처럼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크고 작은 아동학대사건들(KBS 뉴스, 2016. 7)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영유아보육법 제47조)을 강화하는 법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교사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대 예방교육에 보육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더불어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처우개선, 근무환경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김명순, 2014; 한국보육진흥원, 201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사건은 2012년 110건에서 2016년 56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사건이 6천 403건에서 1만 8천573건으로 2.9배 증가(중부매일 2017. 10. 29) 한 것과 비교하면 보육현장의 아동학대는 여전히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유아 발달과 건전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 교사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이선미, 변혜원, 김혜리, 2011;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5),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관계부처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김명순, 2014; 한국보육진흥원, 2015). 유아권리준중 관련 용어도 보건복지부 지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위한 보육교사용 자료집 개발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유아권리준중이란 보육교사가 아동권리 감수성을 가지고 유아의 발달적 요구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보육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유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전선아, 2002).

이전에는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지식이나 교수방법 등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 교사 개인의 내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은경, 2014; 문영순, 2017). 행복감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원, 2018)으로 열정적인 몰입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누릴 수 있다(권석만, 2008).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긍정적으로 삶을 보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직무에 적극적이고, 만족하며, 열정을 가지고 유아를 대하는 것을 말한다(최윤정, 이경민, 2012). 이러한 행복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내적 행복, 직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느끼는 외적 행복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나 자기관리와 연관된 자기조절행복을 포함한다. 행복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긍정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김은옥, 2013; 정다우리, 2013), 일에 몰입하고 의미를 찾음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한다(고경미, 이선경, 심성경, 2014). 또한 행복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성격과 행동에서 인간적 자질이 긍정적으로 표출된다(전선영, 2013). 행복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교사 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이채호, 고태순, 2008; 정민정, 김유진, 2009; 황해익, 2013),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조직몰입(황해익, 김미진, 김병만, 2014), 헌신도(배성희, 2009; 이미란, 김정원, 2011)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감과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 중 하나는 셀프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이란 개인 스스로가 사고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통제 이론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자기 관리 개념의 확장이며(Manz & Sims, 2001), 자율적으로 수정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김진영·성원경, 2012).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특성(고영미, 유영의, 2014)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변화하는 보육정책과 환경 속에서 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셀프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구지애, 2011). 셀프리더십이 높은 보육교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며(장한별, 2015) 교직 헌신(윤분옥, 2016), 자기개발욕구(이정빈, 2017), 전문성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G광역시 S구에서는 2017년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사생활등 6개 분야 58개 사업에 대해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지표에서도 유아권리준중에 관한 영역을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8).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생존과 발달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써 생존권, 폭력이나 방임, 학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보호권, 성장하면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달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참여권이 이에 속한다(이은정, 2016). 이제 보육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권리준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권리준중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육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요소가 유아권리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변인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 혹은 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고영미, 유영의, 권혜진, 2017; 김영은, 2014; 김윤희, 정혜영, 2018; 최혜진, 이호필, 2015) 이를 유아권리준중에 연계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행복하고 셀프리더십을 겸비한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준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준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준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준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291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보육교사 관련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보육교사 관련변인 (N = 291)

구	분	N	%
교사학력	고졸이하	70	24.1
	전문대졸업	119	40.9
	대학이상	102	35.1
교사경력	3년미만	91	31.3
	3~5년이하	76	26.1
	6~10년미만	97	33.3
	10년이상	27	9.3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42	14.4
	민간어린이집	82	28.2
	가정어린이집	72	24.7
	직장어린이집	35	12.0
	법인어린이집	60	20.6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119명(40.9%), 4년제 대학졸업이상 102명(35.1%), 고졸이하 70명(24.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은 6~10년미만 97명(33.3%), 3년미만 91명(31.3%), 3~5년이하 76명(26.1%), 10년이상 27명(9.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교사 82명(28.2%), 가정어린이집 교사 72명(24.7%), 법인어린이집 교사 60명(20.6%),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2명(14.4%), 직장어린이집 교사 35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보육교사 교사관련변인 3문항, 보육교사의 행복감 21문항, 셀프리더십 16문항, 유아권리준중 27문항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권리준중

유아권리준중 설문지는 김진숙(2009), 신상화(2017) 연구의 권리준중 측정도구와 영유아 및 아동권리 존중자가 체크리스트(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박사 3인, 그리고 석사이상의 현장교사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생존권 6문항, 보호권 7문항, 발달권 7문항, 참여권 7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준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권리준중 검사도구 전체 신뢰도계수는 .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생존권 .74, 보호권 .62, 발달권 .70, 참여권 .67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보육교사 행복감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Hills와 Argyle(2002)가 개발한 옥스퍼드행복척도(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표 2.
유아권리존중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 분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생존권	휴식, 영양을 제공받을 권리	1, 2,	6	.74
	질병으로 부터 안전할 권리	3, 4,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6		
보호권	학대(성적, 정서적, 방임 등)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7, 8,	7	.62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9, 10,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 12,		
	환경(성, 가정, 외모, 장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3		
발달권	교육을 받을 권리	14, 15,	7	.70
	휴가와 여가를 즐길 권리	16, 17,		
	정보를 얻을 권리	18, 19,		
	놀이와 문화, 예술활동을 누릴 권리	20		
참여권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21, 22,	7	.67
	집단이나 단체를 스스로 선택하여	23, 24,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25, 26,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27		
전체		27	.87	

OHQ)를 권석만(2008)이 변안하고 최영옥(2011)이 교사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3개 하위요인인 내적행복 6문항, 외적행복 10문항, 자기조절행복 5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검사도구 전체 신뢰도계수는 .94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적행복 .92, 외적행복 .85, 자기조절행복 .89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보육교사 행복감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내적행복	6	1, 2*, 3*, 4, 5, 6*	.92
외적행복	10	7, 8*, 11*, 14, 15, 16, 18, 19*, 20, 21	.85
자기조절행복	5	9, 10, 12, 13, 17*	.89
	21		.94

*역채점 문항

3) 보육교사 셀프리더십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은 Manz(1986)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이재정(2009)의 연구에서 수정하고 김현심(2014)이 보육교사용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행위전략 12문항과 인지전략 4문항의 2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 검사도구 전체 신뢰도계수는 .814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행위전략 .792, 인지전략 .686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보육교사 셀프리더십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행위전략	2	1, 2	.79
	2	3, 4	
	2	5, 6	
	2	7, 8	
	2	9, 10	
	2	11, 12	
인지전략	2	13, 14	.69
	2	15, 16	
전체	16		.81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관련변인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LSD 추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치를 산출한 결과 10이하와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LSD 추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1)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행복감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학력에 따른 행복감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내적행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적행복은 대학졸업이상($M =$

3.59, $SD = .48$), 전문대졸업($M = 3.37, SD = .51$), 고졸이하($M = 3.25, SD =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8.76, p < .001$). 추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행복도 대학졸업이상($M = 3.34, SD = .35$), 전문대졸업($M = 3.22, SD = .33$), 고졸이하($M = 3.25, SD =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10.21, p < .001$). 추후분석 결과, 대학졸업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조절행복이 높았다. 따라서 보육교사 학력에 따라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육교사 경력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내적행복, 외적행복, 자기조절행복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셀프리더십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어떠한지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행복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

($N = 291$)

구분	N	내적행복		외적행복		자기조절행복		
		M	SD	M	SD	M	SD	
교사 학력	고졸이하 ^a	70	2.75	.68	3.12	.32	3.25	.51
	전문대졸업 ^b	119	2.72	.33	3.22	.33	3.37	.51
	대학졸업이상 ^c	102	2.84	.37	3.34	.35	3.59	.48
<i>F</i>		2.01		8.76***		10.21***		
<i>LSD</i>				a < b < c		a, b < c		
교사 경력	3년미만 ^a	91	2.78	.61	3.22	.36	3.36	.50
	3~5년이하 ^b	76	2.70	.27	3.17	.33	3.36	.54
	6~10년미만 ^c	97	2.82	.43	3.30	.37	3.49	.53
	10년이상 ^d	27	2.72	.30	3.28	.27	3.53	.45
<i>F</i>		1.20		2.31		1.77		
<i>LSD</i>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2	2.76	.40	3.28	.37	3.45	.52
	민간	82	2.75	.30	3.23	.35	3.43	.53
	가정	72	2.82	.67	3.22	.32	3.35	.47
	직장	35	2.79	.46	3.28	.34	3.46	.55
	법인	60	2.71	.31	3.23	.35	3.45	.54
<i>F</i>		.56		.38		.45		

*** $p < .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학력에 따른 셀프리더십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행위전략은 대학졸업이상($M = 3.77, SD = .63$), 전문대졸업($M = 3.57, SD = .60$), 고졸이하($M = 3.34, SD =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10.39, p < .001$). 추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행위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지전략도 대학졸업이상($M = 3.88, SD = .79$), 전문대졸업($M = 3.61, SD = .44$), 고졸이하($M = 3.41, SD = .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8.127, p < .001$). 추후분석 결과, 대학졸업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및 전문대졸업 집단 간 인지전략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소인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행위전략은 10년이상($M = 3.80, SD = .63$), 6~10년미만($M = 3.74, SD = .61$), 3년미만($M = 3.47, SD = .61$), 3~5년 이하(M

$= 3.46, SD =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5.17, p < .01$). 추후분석 결과, 경력이 많은 두 집단과 짧은 두 집단 간 행위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전략은 10년이상($M = 4.0, SD = .78$), 6~10년미만($M = 3.78, SD = .73$), 3~5년 이하($M = 3.56, SD = .80$) 3년미만($M = 3.50, SD =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4.17, p < .01$). 추후분석 결과, 3년미만 집단은 6~10년미만과 10년이상 집단에 비해, 3~5년이하 집단은 10년이상 집단에 비해 인지전략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유아권리존중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유아권리존중은 어떠한지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셀프리더십

($N = 291$)

구분	N	행위전략		인지전략		
		M	SD	M	SD	
교사 학력	고졸이하 ^a	70	3.34	.60	3.41	.76
	전문대졸업 ^b	119	3.57	.60	3.61	.74
	대학졸업이상 ^c	102	3.77	.63	3.88	.79
<i>F</i>		10.34***		8.13***		
<i>LSD</i>		a < b < c		a,b < c		
교사 경력	3년미만 ^a	91	3.47	.61	3.50	.77
	3~5년이하 ^b	76	3.46	.62	3.56	.80
	6~10년미만 ^c	97	3.74	.61	3.78	.73
	10년이상 ^d	27	3.80	.63	4.0	.78
<i>F</i>		5.17**		4.17**		
<i>LSD</i>		a,b < c,d		a < c,d, b < d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2	3.67	.62	3.78	.83
	민간	82	3.56	.65	3.62	.81
	가정	72	3.52	.61	3.61	.70
	직장	35	3.72	.65	3.82	.82
	법인	60	3.56	.62	3.58	.78
<i>F</i>		.81		.94		

** $p < .01$, *** $p < .001$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학력에 따른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소인 생존권을 살펴본 결과, 대학졸업이상($M = 4.35, SD = .30$), 전문대졸업($M = 4.22, SD = .37$), 고졸이하($M = 4.18, SD =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5.77, p < .01$). 추후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 및 대학졸업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 생존권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권은 대학졸업이상($M = 3.98, SD = .36$), 전문대졸업($M = 3.77, SD = .35$), 고졸이하($M = 3.74, SD =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13.51, p < .001$). 추후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 및 대학졸업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 생존권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달권은 대학졸업이상($M = 3.83, SD = .42$), 전문대졸업($M = 3.65, SD = .42$), 고졸이하($M = 3.55, SD =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10.42, p < .001$). 추후분석 결과, 전문대 졸업 및 대학졸업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 생존권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여권도 대학졸업이상($M = 4.16, SD = .52$), 전문대졸업($M = 4.03, SD = .49$), 고졸이하($M = 3.17, SD = .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3.62, p < .05$). 추후분석 결과, 대학졸업이상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 참여권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육교사 경력에 따라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생존권은 10년이상($M = 4.46, SD = .27$), 6~10년미만($M = 4.32, SD = .34$), 3년미만($M = 4.22, SD = .35$), 3~5년 이하($M = 4.15, SD =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7.26, p < .001$). 보호권은 10년이상($M = 4.03, SD = .36$), 6~10년미만($M = 3.96, SD = .30$), 3년미만($M = 3.75, SD = .30$), 3~5년 이하(M

표 7. 보육교사 교사관련 변인에 따른 유아권리존중

($N = 291$)

구분	N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M	SD	M	SD	M	SD	M	SD	
교사 학력	고졸이하 ^a	70	4.18	.38	3.74	.31	3.55	.35	3.97	.42
	전문대졸업 ^b	119	4.22	.37	3.77	.35	3.65	.42	4.03	.49
	대학졸업이상 ^c	102	4.35	.30	3.98	.36	3.83	.42	4.16	.52
<i>F</i>			5.77**		13.51***		10.42***		3.62*	
<i>LSD</i>			a,b < c		a,b < c		a,b < c		a < c	
교사 경력	3년미만 ^a	91	4.22	.35	3.75	.30	3.57	.34	3.94	.38
	3~5년이하 ^b	76	4.15	.35	3.73	.35	3.61	.39	3.95	.49
	6~10년미만 ^c	97	4.32	.34	3.96	.36	3.82	.45	4.21	.52
	10년이상 ^d	27	4.46	.27	4.03	.36	3.69	.45	4.23	.57
<i>F</i>			7.26***		11.19***		7.69***		7.91***	
<i>LSD</i>			a,b < c,d		a,b < c,d		a,b < c,d		a,b < c,d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a	42	4.29	.34	3.93	.37	3.80	.42	4.16	.55
	민간 ^b	82	4.25	.32	3.80	.37	3.64	.40	4.00	.47
	가정 ^c	72	4.23	.38	3.80	.34	3.60	.36	4.07	.43
	직장 ^d	35	4.31	.35	3.92	.35	3.85	.47	4.21	.55
	법인 ^e	60	4.26	.38	3.83	.35	3.70	.43	3.99	.49
<i>F</i>			.42		1.58		3.34*		1.87	
<i>LSD</i>							b,c < a,d			

* $p < .05$, ** $p < .01$, *** $p < .001$

= 3.73, $SD =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11.19, p < .001$). 발달권은 6~10년미만($M = 3.82, SD = .45$), 10년이상($M = 3.69, SD = .45$), 3~5년 이하($M = 3.61, SD = .39$), 3년미만($M = 3.57, SD = .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7.69, p < .001$). 참여권은 10년이상($M = 4.23, SD = .57$), 6~10년미만($M = 4.21, SD = .52$), 3~5년 이하($M = 3.95, SD = .49$), 3년미만($M = 3.94, SD =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7.91, p < .001$). 추후분석 결과, 경력이 많은 10년이상 및 6~10년미만 집단과 경력이 짧은 3~5년이하와 3년미만 보육교사집단 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발달권 인식은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 = 3.34, p < .05$). 추후분석 결과, 직장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발달권 인식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간의 상관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유아권리존

표 8. 보육교사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간의 상관

구분	1	2	3	4	5	6	7	8	9	
행복감	1	1								
	2	.39***	1							
	3	.48***	.58***	1						
셀프 리더십	4	.35***	.72***	.59***	1					
	5	.31***	.67***	.52***	.87***	1				
유아권리 존중	6	.27***	.54***	.37***	.60***	.53***	1			
	7	.40***	.68***	.59***	.75***	.71***	.67***	1		
	8	.33***	.60***	.55***	.73***	.70***	.55***	.79***	1	
	9	.34***	.62***	.54***	.75***	.72***	.51***	.80***	.87***	1

*** $p < .001$

행복감: 1=내적행복, 2=외적행복, 3=자기조절행복, 셀프리더십: 4=행위전략, 5=인지전략, 유아권리존중: 6=생존권, 7=보호권, 8=발달권, 9=참여권

중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범위는 .27에서 .87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으면 셀프리더십과 유아권리존중이 높아지고,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유아권리존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보육교사의 행복감의 하위변인들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들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는 유아권리존중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112.26, p < .001$)와 2단계($F = 136.98, p < .001$)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 모델 1에서는 보육교사 행복감의 외적행복($\beta = .10.47, p < .001$)과 자기조절행복($\beta = .26, p < .001$)은 유아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표 9.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1				모델 2				
	B	SE	β	t	B	SE	β	t	
상수	1.41				1.74	.12		15.42***	
행복감	내적행복	.04	.04	.05	1.17	.04	.03	.05	1.37
	외적행복	.52	.05	.52	10.47***	.16	.05	.16	3.32**
	자기조절행복	.18	.04	.26	5.03***	.07	.03	.11	2.48*
셀프 리더십	행위전략				.25	.04	.45	6.23***	
	인지전략				.09	.03	.20	3.01**	
$R^2(adj.R^2)$.54(.54)		.71(.70)				
ΔR^2					.17				
F			112.26***		136.98***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0%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 2에서는 보육교사 셀프리더십의 행위전략($\beta = .45, p < .001$)과 인지전략($\beta = .20, p < .01$)은 유아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7.0%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시대가 요구하는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 인식을 높이는 방안으로의 보육교사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학력에 따라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적행복과 자기조절 행복 인식이 높았다. 이성아(2014)의 연구에서도 학력에 따라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육 현장경력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적행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급여 및 근무조건이 상이함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행복의 평균은 학력, 경력,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외적행복이나 자기조절행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모든 보육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추후 보육교사의 내적행복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학력과 경력에 따라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에 차이가 있었으나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과 경력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이 높았다. 신미숙(2010)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성을 잘 발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기주도성은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능력으로 내적인 추진력인 셀프리더십과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이해원(2014)은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경력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밝히고, 보육교사가 업무 자율성을 부여받아 주도적 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이 직업을 변경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근무경력이 높아지면 그와 연계되어 셀프리더십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이 낮은

교사와 달리 다양한 업무의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의 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더 잘 발휘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소를 살펴본 결과, 학력과 경력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집유형에 따라서는 발달권 인식에만 차이가 있었다. 전문대 및 대학졸업이상이 고졸이하에 비해, 10년이상 및 6~10년미만 집단이 3~5년 및 3년미만 집단에 비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식이 높았다. 한편,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발달권 인식이 높았다. 이렇듯 본 연구에 나타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은 교사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서유임(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학력은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양한 학력을 소유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도 교사 재교육이나 유아권리에 관한 의무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의 경력이 높은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 인식이 높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경력이 높을수록 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고 밝힌 서영숙 외(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주한수(2005)도 유아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학력별, 경력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력이 많을수록 유아권리에 관한 더 많은 교육과 현장경험으로 인하여 유아권리존중 인식이 높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으면 셀프리더십과 유아권리존중이 높아지고,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유아권리존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육 및 보육현신(윤분옥, 2016; 좌승화, 이해정, 2019)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행복감이 낮을수록 아동중심의 상호작용을 경시하거나 제지시키며(이기영, 2007), 행복한 보육교사는 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전선영, 2013), 행복감과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교사 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높다(곽희경, 2011)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고,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유아권리존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은 유아권리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0%의 설명력을 보였다. 여기에 셀프리더십이 추가되어 16.7%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느끼는 일상적 행복감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관리전략인 셀프리더십 변인이 더해질 때 유아권리존중 인식수준이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유아권리존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보육교사가 느끼는 일상적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 몰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가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조건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불만족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정서가 학생에게 전염되기 때문에(Moè, Pazzaglia, & Ronconi, 2010), 유아를 보육하는 일 자체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를 위한 셀프리더십 지원 또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의 질 향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행복감 하위요인 중 내적행복이 전반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

그럼 개발과 적용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미, 이선경, 심성경(2014). 유아교사의 교수 몰입도와 행복감 및 전문성 발달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69-94. doi:10.24211/tjkte.2014.31.1.69
- 고영미, 유영의(2014). 셀프리더십 강좌가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5), 541-560.
- 고영미, 유영의, 권혜진(2017).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 기본심리욕구, 내적 통제 소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1), 29-50. doi:10.18023/kjece.2017.37.1.002
- 곽희경(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지애(2011). 사립유치원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지도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rean.go.kr>에서 2018년 8월 10일 인출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명순(2014). **어린이집 교사 재교육 현황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모색**.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김영은(2014).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319-340.
- 김윤희, 정혜영(2018).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셀프리더십 및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873-892. doi:10.22251/jlcci.2018.18.16.873
- 김은경(2014). 어린이집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역할 수행능력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옥(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 성원경(2012).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전문성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직업교육연구**, 31(2), 123-140.
- 김현심(2014). 보육교사의 보육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순(2017).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계 연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2009). 보육교사의 행복이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25-44.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215-232.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1권**.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7). **아동인권 선임 교사를 위한 안내서 1**.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유임(2007).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숙(2010).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화(2017). 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실행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분옥(2016).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직원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2007). 교사의 보육신념, 보육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영아 기질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란, 김정원(2011).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현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2), 243-260.

- 이선미, 변혜원, 김혜리(2011).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리더십.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49-79.
- 이성아(2014). 영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6).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문제행동 인식 및 문제행동지도 전략 간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정(2009).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셀프리더십 수준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빈(2017).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개발 욕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호, 고태순(2008).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건강 지각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23-40.
- 이혜원(2014). 어린이집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경력 몰입간의 관계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3(1), 77-93.
- 장한별(2015).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영(2013).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 연구: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심리적안녕감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우리(2013).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심사 및 교사 인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49-70.
- 정민정, 김유진(200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65-74.
- 정선아(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프로그래밍.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9-62.
- 좌승화, 이해정(2019).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 교직원리의식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05-123. doi:10.30761/ecoece.2019.18.1.105
- 주한수(2005).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부매일(2017. 10. 29). 보육교사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사건 5년간 5.1배 '급증'.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24>에서 2018년 9월 8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보육교직원용 PDF).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067에서 2018년 9월 7일 인출
- 최영옥(2011). 교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경민(2012). 유아교사의 행복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강점개발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1), 395-415.
- 최윤진, 김정희(2014).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5), 225-246.
- 최혜진, 이호필(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515-537.
- 한국보육진흥원(2015). Vision보육 18호. <http://ebook.kcpi.or.kr/ecatalog.jsp?Dir=41>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 황해익(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57-180.
- 황해익, 김미진, 김병만(2014). 유아교사의 행복 교육에 대한 개념도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59-79. doi:10.14698/jkce.2014.10.1.059
-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2015). 보육교사의 감사성향에 따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1), 299-320.
- KBS 뉴스(2016. 7).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해당 교사 자살 시도.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4842&ref=D>에서 2018년 9월 10일 인출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doi:10.1016/S0191-8869(01)00213-6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doi:10.5465/amr.1986.4306232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e,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Moè, A., Pazzaglia, F., & Ronconi, L. (2010). When being able is not enough. The combined value of positive affect and self-efficacy for job satisfaction in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5), 1145-1153. doi:10.1016/j.tate.2010.02.010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Sun Shin Ahn

Master's Degr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 Ju University

Hyun Suk Yo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 Ju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how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influences on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Methods: For this purpose, 350 childcare teachers in G city were surveyed. Data of 291 copies as final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through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external and self-regulating happiness sub-factors of happiness, differed according to the academic background. Behavioral and cognitive strategies,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differed according to th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The right to life, right to protection, development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which are sub-factors of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differed according to th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and the development right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childcare center.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happiness, self-leadership and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Third, the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f childcare teach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pect of young children's right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fforts for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f childcare teachers as part of efforts to raise childcare teachers who are highly aware of the need to respect young children's rights.

Keywords: childcare teacher, happiness, self-leadership,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Received April 30, 2019

Revision received May 31, 2019

Accepted June 13, 2019